

기혼여성의 결혼 불만족과 혼외관계에 대한 탐색적 고찰*

An Exploratory Study on Marital Dissatisfaction and Extramarital Relations among Married Women*

신라대 사회복지학부 가족학 전공
부교수 공미혜

Major in Family Studies, Silla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Kong, Mee-Hae

◀ 목 차 ▶

- | | |
|-----------|----------|
| I. 문제제기 | IV. 결과분석 |
| II. 선행연구 | V. 결 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

This study examines how marital dissatisfaction is connected with extramarital relations among married women. To explore this subject, I am using in-depth interview techniques. The data from 16 married women who involved (and are involving) extramarital relations are collected in semistructured interviews.

In this article, I describe four specific types of extramarital relations with particular relevance to marital dissatisfaction: (1) temporary extramarital relations caused by marital dissatisfaction, (2) positive extramarital relations as maintaining dissatisfied marriage, (3) unavoidable extramarital relations as breaking dissatisfied marriage, and (4) extramarital relations as a part of life with satisfied marriage. With these results, I believe that equity theory could be applicable in explain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marital satisfaction and extramarital relations.

There are limitations when the qualitative research is analyzed. One problem is measurement. It is difficult to measure equality (or equity), life dissatisfaction, and other concepts. Furthermore, this study is not able to explain causal relationships among equality, life dissatisfaction, actual extramarital relations. The future study should perhaps be in quantitative research focused on the causal model in which all exchange variables are conceptualized and properly measured for the intimate relationship.

주제어(Key Words): 결혼불만족(marital dissatisfaction), 혼외관계(extramarital relations), 불평등(unequalness), 공평성이론(equity theory)

* 이 연구는 2000년도 신라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에 의해 이루어졌음.

I. 문제제기

대부분의 사회에서 혼외관계는 금지되어 있으며 부정적인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외관계는 어느 사회에서나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최근 타임지에 의해 실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사회는 태국, 필리핀 등 아시아 5개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남성의 65%, 여성의 41%)로 혼외관계를 경험한 것으로 밝혀져 문제가 되고 있다(동아일보, 2000. 3. 14.).

유교적 가족주의 가치관이 아직도 강하게 자리잡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가부장적 결혼관계는 여성에게 억압적이고 불만의 근원이 되고 있다. 남성에게 있어서 결혼은 가장, 부양자, 보호자가 되어 아내와 자녀를 보호하는 이름으로 지배하는 것을 정당하게 하는 반면, 여성에게는 내조자, 피보호자, 피부양자가 되게 하여 부차적인 존재가치를 지니게 한다.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사회제도로써 결혼은 처음부터 여성과 남성에게 불평등한 관계를 합법화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50%에 도달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상대적 경제력은 부부간 권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지만 성계층화된 사회에서 정치경제학의 거시적 수준인 가부장적 요소는 부부간 상대적 권력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Blumberg, 1991).

많은 사회과학자들은 혼외관계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을 파악하는데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그 요인 중 하나로 빈번하게 언급되는 것이 바로 결혼생활의 불만족이라고 볼 수 있다(이영숙, 박경란, 전귀연, 2000; Bell et al., 1975; Brown, 1991; Glass and Wright, 1985; Greeley, 1991; Prins, Buunk, And Van Yperen, 1993; Treas and Giesen, 2000). 이들 연구에 의하면 결혼생활의 불만이 큰 사람들이 혼외관계를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결혼생활의 불만은 혼외관계와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Prins, et al., 1993).

이와 같이 결혼생활의 만족도와 혼외관계에 관한

연구는 이미 서구에서는 상당히 축적된 상태이다. 그러나 혼외관계에 관한 연구는 주제의 특성상 우리 사회에서 실증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매우 드물고 더구나 결혼생활의 불만이 혼외관계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불평등한 결혼생활에 의한 불만이 기혼 여성의 혼외관계 경험과 어떤 연관성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 담론분석을 통해 유추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1. 가부장적 결혼과 불만족

현대 우리 사회에서 결혼은 남녀간 자유의사와 선택을 존중하는 "계약"의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제도로서의 결혼은 전통적인 부계혈통의 관습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며 따라서 성별 비대칭적인 원리가 전반적인 결혼생활을 지배하고 있다(장필화, 2000). 여기에는 아직도 50%에 미달하고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와 더불어 자신이 투자한 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제력을 보장해주는 경제구조적 여건의 미비에 의한 여성들의 경제적 종속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의 결혼에 대한 결정도 상당 부분 자율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설령 자발적으로 결혼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부과된 역할과 임무는 부담과 불만을 야기하는 근원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아직 우리 사회에서 결혼은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와 선택에 의한 계약의 개념이 아니라 여전히 여성의 종속을 전제로 하는 가부장적 개념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성별에 따라 귀속적인 특질을 받아들이는 결혼은 계약이 아닌 신분과 관련된 문제이므로(Pateman, 1988) 여성의 경우 자신의 역할을 공평하게 협상하거나 계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단 결혼제도에 들어서게 되면 거의 강제적으로 남성과 가족구성원들을 위한 성적, 정서적 서비스와 더불어 가사노동을 제공하는 역할과 혈통을 유지하는 자녀

출산의 역할을 요구받게 된다(장필화, 2000). 결혼을 통해 남성은 아내를 부양하고 보호하는 대신 아내의 몸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여기서 아내의 몸에 대한 권리는 아내에게 성적으로 접근할 권리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혈통을 이어 줄 자녀출산과 양육의 권리까지 포함한다.

결혼이 개개인의 자유의사와 선택에 의해 결정되든 아니든, 현대의 결혼제도는 근본적으로 가부장적 속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결국 그 안의 인간관계, 특히 결혼의 축인 부부관계는 불평등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바렛과 매킨토시(1994)는 가족내 분업이 남성의 권력과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가정내 서비스와 재화의 분배를 통해 부부간 불평등한 교환관계를 명시하고 있다(p.86). (1) 여성이 하는 집안일로부터 남성이 얻는 이득은 남편이 아내에게 제공하는 지원보다 크며, (2) 그런 지원은 매우 가변적이고 그 양 또한 남편의 호의에 달려 있으며, (3) 소비에 대한 결정은 종종 남편의 의사 위주로 행해진다는 것이다.

가족내에서 이루어지는 남성의 지배가 단순하게 경제적 불균형의 결과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바로 남성이 집에서 행하는 권력이 사회적인 권력에 의해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즉, 부부가 서로 비슷한 소득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남성들은 경제적 문제 외에 다른 문제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남성 지배적인 구조는 부부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에 확대되어 적용되고 있다(바렛과 매킨토시, 1994). 따라서 여성은 자신의 역할에 집착하면서도 매우 불만스러워하는 양면성에 빠지게 된다. 조정문(1995) 역시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결혼생활에서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남성보다 낮은 결혼만족도를 보인다고 주장한다.

2. 결혼불만족과 혼외관계

일반적으로 사회교환적 접근법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교환에 중점을 두고 설명하는 접근법으로 보상, 대가, 호혜성 등의 개념을 포함한다. 사회교환적 접근법은 문화인류학, 사회학, 경제학,

가족학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사회심리학 분야에서는 성을 포함한 두 사람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교환에 초점을 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사회교환적 접근법은 배우자 선택, 관계형성, 관계해체 등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이론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회교환적 접근법은 다음과 같은 기본 가정에서 비롯된다(Nye, 1979). 첫째, 사회행동은 일련의 교환이다. 둘째, 개개인은 보상을 최대화하고 댓가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 셋째, 개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보답하려고 한다. 물론 이런 가정은 사람들 사이의 상호 거래에 기초를 둔 것이지만 혼외관계와 같은 성문제가 개입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사회교환적 접근법에서 특히 성(sexuality)에 중점을 두고 발달시킨 것은 공평성이론이다(Sprecher, 1998). 공평성이론은 Homans의 공정이론(justice theory)을 친밀한 관계에 적용시켜 Walster 등이(1978) 개발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명제를 담고 있다(Sprecher, 1998: 33).

<명제 1>: 개개인은 산출물을 최대화하려고 노력한다(여기서 산출물은 보상(rewards)에서 처벌(punishments)을 뺀 것과 같다).

<명제 2>: 집단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공정하게 취급하는 구성원에게 보상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처벌할 것이다.

<명제 3>: 개개인은 자신이 불공평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고통을 받을 것이다. 불공평성이 크면 클수록 고통도 클 것이다.

<명제 4>: 자신이 불공평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개개인은 공평성을 회복하여 고통을 없애려고 노력할 것이다. 불공평성이 크면 클수록 고통도 클 것이고 따라서 공평성을 회복하려는 노력도 클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불공평성과 결혼만족도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규명되고 있지만(조정문, 1995; Adams, 1965; Sprecher, 1998) 결혼만족도는 대개 혼외관계의 한 변수로만 분석되고 있을 뿐, 공평성이론이 혼외관계를 설명하듯이 결혼만족도와

혼외관계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이론들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부부간 불공평이 불만족으로 이끄는 변수라면(조정문, 1995: Glass and Wright, 1985; Prins, Buunk, And Van Yperen, 1993) 앞에서 제시된 <명제 3, 4>에서 제시된 불공평성을 불만족으로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이영숙 외(2000)는 혼외관계와 결혼불만족이 관련된 이유로 혼외관계가 결혼생활에서 얻지 못하는 것을 제공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이 혼외관계를 결혼불만의 보상행위로 본다면 공평성이론은 결혼불만과 혼외관계를 설명하는 이론틀로 발전할 수 있는 근거를 지니게 된다.

이렇게 불만족한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명제 4>와 같이 자신이 느끼는 고통을 감소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를 회복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 방법은 불만족하다고 느끼는 파트너가 상대방에게 변하도록 요구하거나 자신의 노력을 변경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마치 불만족이 없었던 것처럼 확신함으로써 심리적인 회복을 꾀하는 것이다(Sprecher, 1998).

배우자에게 성행위를 거절하는 것도 고통을 회복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고 혼외관계를 추구하는 것도 친밀관계를 보상하려는 하나의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결혼생활이 상당히 나쁘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의 55%가 혼외관계의 경험이 있는 반면, 행복하다고 본 여성들의 20%만이 혼외관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Bell and Peltz, 1974 이영숙 외, 2000에서 재인용). Hatfield 등의 연구(1978)에서도 결혼생활에서 배우자보다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했다고 믿는 사람은 자신의 혼외관계를 배우자가 참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불만족한 파트너는 그 관계를 끝내기 위해 혼외관계를 추구하기도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개개인은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오히려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기회를 잡기도 한다는 것이다(Brown, 1991: Sprecher, 1998).

그러나 공평성이론은 자원의 교환이 비교적 명백하게 측정될 수 있는 계산적이고 이차적인 관계(즉,

고용인-피고용인 관계)에 적용되었던 관점으로(조정문, 1995) 이를 친밀한 일차적 관계에 적용하는 것을 우려하고 비판하는 학자들도 있다(Brehm, 1992, Chrisman, 1994, Hatfield et al., 1985). 이들은 친밀한 관계가 이기적인 계산에 의해 행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개개인은 친밀한 관계에서 공평성이나 평등성의 원리보다는 필요의 원리에 의해 자원을 분배하고 행동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결혼생활과 혼외관계는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특히 Reibstein과 Richards(1992, 이영숙 외, 2000에서 재인용)는 결혼생활과 혼외관계를 보는 시각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 번째 유형은 혼외관계를 결혼생활의 불만족에 의해 유발되는 것으로 결혼의 정당성을 침해한다고 보는 경우이다. 앞서 제시한 공평성 이론은 이 유형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개방결혼에 해당하는 것으로 혼외관계를 결혼생활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관계로 보고 인정하는 경우이고, 세 번째 유형은 결혼생활의 분절을 수용하여 혼외관계를 결혼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한편, 결혼생활에서 만족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개개인은 좀더 매력적인 대안을 추구하거나 그럴 기회를 부여받기도 한다. Reibstein과 Richards(1992, 이영숙 외 2000에서 재인용)의 분류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유형이 이 경우와 연관이 있다.

또한 Berschied와 Campbell(1981)은 사회조건의 변화가 이성애 관계의 연속성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여성의 경우, 이혼율의 증가나 이성애 만남의 기회증가는 현재의 관계 만족도와는 무관하게 다른 대안을 추구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Sprecher(1998)가 제시한 <명제 4>에서 불공평성을 불만족으로 대치했을 경우 결혼불만족으로 인한 고통의 회복방안으로 혼외관계가 적용될 수 있는지, 또한 혼외관계가 결혼불만족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어떤 요소가 개입되어 있는지 그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결혼만족도와 혼외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로서, 정립화된 이론틀에 맞추어 구체화된 연구문제를 분석하기보

다는 이 두 변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기간 및 연구대상

기혼여성의 혼외관계에 관한 연구는 주제의 특성상 연구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대상은 친구나 주변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연구에 기꺼이 응한 16명의 기혼여성으로 부산과 경남지역에 살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면접 내용은 녹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연구대상자가 녹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학원생 연구보조원이 일일이 다 받아 적었다. 자료수집은 2000년 10월에서 2001년 5월까지 약 8개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면접내용 중 의심이 가거나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전화통화를 통해 여러 차례의 보조면접도 행해졌다. 면접 장소는 될 수 있는 한 연구대상자가 선정하는 곳으로 했으며 주로 연구대상자 주거지에

가까운 카페나 레스토랑, 또는 연구대상자의 주거지가 사용되었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구대상자는 30대와 40대로 고졸 이상의 학력을 지니고 있으며 과반수는 취업을 한 상태이다. 이들은 전부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30대 초반의 2명을 제외하고는 10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한 여성들로서, 연애혼과 중매혼이 거의 반반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들 중 2명만이 현재 자신이나 배우자의 혼외관계로 인해 결혼생활을 중식시켰고, 2/3 정도는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여전히 혼외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혼외관계의 기간은 2개월에서부터 무려 7년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혼외관계가 중식된 경우는 그 기간이 대개 6개월 미만으로 짧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상대방 남성이 미혼인 경우는 4명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는 주제의 특성상 연구에 기꺼이 응하는 대상에 한하여 면접이 이루어졌으며 이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도 거의 모두 중산층의 30-40대로, 학력수준도 고졸과 대졸로 한정되어 있어서 일반화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한편으로, 이런 현상을 혼외관계에 있는(또는 경험한) 기혼여성의 특성으로 부각할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사례	연령	학력	직업	생활정도	결혼년수	결혼유형	결혼생활	혼외관계(년수)	상대방혼인유무
1	36세	대졸	무	중상	13년	연애	유지	중식(2년)	미혼
2	39세	대졸	무	중상	13년	중매	유지	지속(1년8월)	미혼
3	45세	고졸	무	중	21년	연애	유지	지속(3년)	기혼
4	38세	고졸	유	중	12년	연애	유지	중식(6개월)	기혼
5	45세	고졸	무	중	18년	중매	유지	지속(2년3월)	기혼
6	30세	대졸	유	중	3년	연애	이혼	지속(8개월)	기혼
7	39세	대졸	유	중	12년	연애	유지	지속(7년)	미->기혼
8	48세	고졸	유	중	25년	연애	별거	지속(3년9월)	기혼
9	33세	대졸	무	중	9년	중매	유지	중식(2개월)	미혼
10	39세	대졸	무	중상	15년	중매	유지	중식(3개월)	미혼
11	44세	고졸	무	중	19년	연애	유지	지속(1년8월)	기혼
12	47세	고졸	유	중	21년	연애	유지	중식(6개월)	기혼
13	38세	대졸	유	중상	12년	중매	유지	지속(2년)	기혼
14	44세	대졸	무	중	18년	중매	유지	지속(1년)	기혼
15	41세	대졸	무	중	14년	중매	유지	지속(6년)	기혼
16	39세	고졸	유	중	10년	연애	유지	지속(3년)	기혼

수도 있겠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연구가 없어서 검증되지는 못하였다.

2. 면접도구

면접도구는 반구조화된 질문을 사용했으며 연구 대상자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였다. 면접내용은 원래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혼외관계의 시점이나 원인 및 지속과정과 영향요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공미혜, 2001) 특히 이 연구와 연관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일반적 사항: 나이, 결혼상태(결혼, 별거, 이혼, 재혼) 및 결혼기간, 결혼유형(중매, 연애), 자녀 유무, 학력, 직업, 수입, 종교 등
- 2) 혼외관계의 원인과 지속:
 - 어떻게 상대방을 만나게 되었는가?
 - 그 사람에 대한 첫인상은 어떠한가?
 - 그 사람과 당신 사이에 어떤 느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어떻게 처리했는가(관계에 대한 인정 또는 부정)? 그 당시 기대감은(관계에 대한 지속의 가능성)?
 - 그 사람과 어느 정도 만나고 있으며 만났을 때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인가?
 -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은 점은 무엇인가?
 -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변하고 있는가?
 -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무엇인가?
 - 또 다시 이런 관계를 맺고 싶은지?
- 3) 결혼만족도:
 - 결혼생활에 만족하는가?
 - 남편과의 관계는 어떠한가?(정서적, 성적, 헌신도, 성격 등)
 - 자녀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부부간 결혼만족도나 결혼안정성 등에 관한 선행 연구는 대부분 양적인 자료를 이용한 경우가 많다. 이 연구는 연구주제나 대상의 특성 때문에 질적인 연구방법을 적용했으므로 결혼만족도를 측정하는 객관적인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서 타당성과 일반화

의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그러나 심층면접에서 얻은 언어적 단서를 근거로 연구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타당성의 근거로 삼기로 한다. 연구대상의 선정과정과 대상수를 고려해볼 때 연구결과와의 일반화는 이 연구에서는 제외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밝힌다.

IV. 결과분석

이 연구에서 혼외관계를 경험한 기혼여성들이 자신의 결혼생활이나 남편과의 관계를 만족하는지에 따라, 그리고 혼외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1. 불만족한 결혼생활과 일시적 혼외관계

일반적으로 남성과는 달리 기혼여성의 경우 결혼생활에 만족하지 못할 때 혼외관계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된다고 한다(이영숙 외, 2000; Bell et al., 1975; Brown, 1991; Glass and Wright, 1985; Greeley, 1991; Prins, et al., 1993; Treas and Giesen, 2000). 이 연구에서도 결혼생활에 불만족하는 기혼여성은 75%(총 12사례)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중 첫 번째 유형은 남편에 대한 불만으로 결혼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있던 중 일이나(사례 4) 문화강좌 수강으로(사례 9, 10) 다른 남자를 만나는 기회가 생기면서 일시적인 혼외관계를 경험한 사례이다. 따라서 이들의 경우 전부 3개월 이내에 혼외관계가 종결된 상태이고 혼외관계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이고 억압적인 사회제도에 적응하려는 수동성을 보이고 있다.

이들 중에는 남편의 폭력을 자신 탓으로 돌리며 그래도 남편을 사랑한다고 여기고 가정으로 복귀한 경우(사례 4)도 있다. 이 여성은 “내가 열받게 만드는 경우에... 주먹이 날라온다”면서 “주도권”은 자기가 잡고 산다며 남편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그래서 혼외관계의 상대방인 바람둥이 그 남자에게 당한 것이 “그냥 분하고 억울하다”며 자신이 잠깐

정신이 나간 것으로 반성하고 있다.

다른 두 경우는 여성의 혼외관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사례 9), 또는 아이 때문에(사례 10) 어쩔 수 없이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사례 9)의 여성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외도에 대한 인식이 틀리다며 “평생 죄인처럼 사는 것보다는 ‘일단은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한다. 특히 (사례 10)의 경우는 여성의 희생과 봉사를 요구하는 억압적인 결혼생활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사회구조적으로 이를 극복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체념하고 있다. 이 여성은 혼외관계였기 때문에 그 남자와 “늘 편안했고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멋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지 “결혼관계가 성립된다면 마찬가지로 일꺼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즉, 이 여성은 사회제도로서 결혼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 유형의 여성에게 있어서 혼외관계는 결혼생활의 문제점과 이성과의 만남이 일시적으로 벗어난 보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유형은 결혼생활을 불만스러워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아내의 역할을 유지하는 가부장적 결혼의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장필화(1999) 역시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억압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요인으로 이혼에 대한 사회적 금기,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 수동적 사회화에 의한 심리적 독립의 저해, 모성 이데올로기 등을 지적하고 있다.

평소에는 부드러운데. 그런데 열 받으면 가끔씩 폭력행사도 하지예. 내가 열받게 만드는 경우에... 그만 두라, 입다물어라 그러다가 내가 짹 짹 바가지 끊으면 그때는 주먹이 날라오는 거라예. 그런데 주도권은 내가 잡고 살아예... 경제적으로 한때 어려움이 있었지예. 빚도 좀 있었고. 근데 남편이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거든예.

그 남자는 진짜 바람둥이였어예. 진실하게 나를 대한 것 같지는 않습니더. 그냥 분하고 억울하고 그래예. 그 아내도 불쌍하고.

뭐 더 할 말은 없어예. 그냥 남편에게 좀 미안하고. 또 나는 아직도 남편을 사랑하고 이혼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어예. 잠깐 내가 좀 미쳤는갑다 그렇게 생각습니더(사례 4).

다들 살다 보면 사랑도 하고 정도 생긴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남편과 나는 공통점이 없어요. 작품성이 있다는 평을 받은 영화는 꼭 비디오라도 보는 나와는 달리 남편은 홍콩 액션 영화를 즐겨보고, 향을 즐기라고 윈두커피를 타오면 녹차를 타달라고 그래요. 서로 마음 속에 있는 얘기를 터놓고 해 본 기억도 없고. 하는 이야기라는 것이 꼭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적인 부분도 서로 친밀감이 없으니까 건성으로 하죠... 아이들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당분간은 힘들꺼예요.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요... 남편과는 잘 회복될 것 같지 않지만 노력해 봐야죠. 일단은 가정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보통 남자들이 바람이 나면 가정까지는 깨지지 않는데 여자들은 다르다 하잖아요. 물론 그런 상황이 되면 사회가 올바르게 받아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설령 용서가 된다 하더라도 평생 죄인처럼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사례 9)

남편은 과묵한 편이예요. 사실 뭐 대화도 할 시간이 별로 없기도 하지만 집에 들어오면 경상도 남자 특유의 몇 마디 말 있지요? 그런 정도예요. 그리고 피곤하니까 자기도 바쁘고, 남편이 생각하는 나라는 존재는 그냥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위해서 또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정도고요. 애정은 별로 없어요.

남편에게 나라는 존재는 그저 자신의 성공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해야 하는 존재였어요. 나는 마음이 많이 허전했고 그 허전한 마음을 승용차 타고 백화점으로 쇼핑하는 낙으로 살았어요. 내가 쓸 돈은 풍족했으니까요.

예전의 내 생활에 충실하도록 노력해 봐야죠. 나도 어쩔 수 없나 봐요. 나 자신이 상당히 이기적이라 생각했는데 내 사랑을 선택하지 못하고, 두려움이 많았겠지요. 아이가 제일 먼저 걸리기도 했구요. 그런데 한가지 생각은 그와 그런 관계였으니까 가능했지 그와 결혼관계가 성립된다면 마찬가지로 일꺼라는 생각은 들어요. 사회가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사례 10).

2. 불만족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기재로서 혼외관계

이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 중 가장 많이 지적하는

상황이 바로 이 경우이다(총 16사례 중 6사례). 이들은 불만스러운 가정생활의 가장 큰 요인으로 남편과의 정서적 단절을 지적하고 있다. 이영숙 외(2000)도 부부간 정서적 요소의 상실을 혼외관계의 원인으로 본다.

이들 대부분은 남편이 “말이 없고” “무뚝뚝”해서 사는 재미가 없다. 이들은 “남편에 기대어”(사례 11) “정신적으로 충족된”(사례 13) 생활을 하고 싶은데 남편은 집에서 대화하는 것을 귀찮아하고 아이들도 자기들대로 지내니 “소외감”(사례 11, 14, 16)을 느낀다. 그러나 이들 여성은 “늘 손해보는” 것 같고(사례 11) 생활이 “힘들고 낙이 없”으며 “반복되는 결혼생활을 마지못해”(사례 16) 또는 “아이를 위해”(사례 11, 13, 14) 살아간다.

그러나 더 이상 남편에게 희망이 없는 이들에게 어찌면 혼외관계는 그런 무력하고 소외된 가정생활을 벗어나는 탈출구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들 여성은 “(혼외관계)는 부부간의 의사소통문제라든가 정서적 교류가 안되기 때문”(사례 3)이라고 주장하면서 “다 만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한다면 그럴 이유”는 없다며 “가정이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사례 5) 또는 “가정을 깨지 않기 위해서”(사례 11) “정신적 충족”(사례 13)과 “우울감을 해소”(사례 14)하면서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보탬”(사례 3)을 주는 것으로 혼외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다.

이는 Sprecher(1998)가 제시한 바와 같이 불만스러운 남편과의 관계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으로 혼외관계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들 여성은 남편과의 불만원인을 정서적 단절로 보고 있으며 혼외관계를 통해 친밀관계를 보상하고자 한다. 이들의 보상전략은 “비효율적인 모험”(이영숙 외, 2000: 118)이지만 결혼생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이 유형은 Reibstein과 Richards(1992)의 분류에서 첫 번째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혼외관계는 결혼의 정당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들은 굳이 이혼을 생각하지 않으며 “남편과도 잘 지냈으면 하는데 힘들 것” 같아(사례 14) 다른 방법을 생

각하게 된다. 그래서 “정말로 나를 위해 주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남자가 있다면”(사례 11) “또 마음이 가게 되는 사람이 나타나면”(사례 13) 혼외관계는 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생활 면에서는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으나 서로 성격상 정서적인 교류가 원만치 않으니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대화를 많이 해야 하는데 원래 남자들 별로 말이 없잖아요. 성적면은 주로 남편 중심으로 해요. 자기 욕구만 채우는 그런 식이 많죠.

(혼외관계)는 부부간의 의사소통문제라든지 정서적 교류가 안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남자는 여자하고는 다르게 사회적으로 많이 묵인해주고 있는 것 아닌가요.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니가 오죽 못하면 남편이 그러겠느냐. 등등 남편이 바람이 나다 여자 탓이잖아요. 우리 사회는.

사람에 얽매어 이 사람과 나를 따로 규정짓기보다는 인간 대 인간으로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보탬을 주는 관계로 나아가고 싶어요. 앞으로 그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사례 3).

남편이 성격이 급하고 대화도 많이 안하고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는 잘 맞지 않아요. 근데 성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글썽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뭐가 뭔지 알고 하네요. 다 여자들은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하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가정을 많이 생각하니까 가정이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가능하다고 봐요... 처음부터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고 굳이 서로 가정을 해치면서까지 만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가정을 파괴하지 않는 한 괜찮지 않아요(사례 5).

남편이 굉장히 보수적이죠. 가정에서는 손도 까딱 안해. 그래서 나도 뭐 원래 그렇게 살았으니까 특별히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자들이 늘 손해보잖아. 집에서 하는 일이 뭐냐하고 큰 소리치고...

남편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을 만큼 고지식해. 그래서 늘 불만이 많아. 가정에 대해 만족은 없는데 그래도 어떡해. 자식들이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참고 살지. 성적으로는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건지 몰라도 만족해. 이렇게 해주면 이게 만족인갑다. 저렇게 해주면 저게 만족인갑다. 그렇게 생각해. 성

적으로 불만족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은 아니야. 남편이 너무 정이 없고 완고하고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가정에서 만족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해. 여자들은 남편에게 기대어 살잖아. 그런데 남편이 집에 돌아와 말도 없고 그러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 아이들도 다 커서 제자리를 찾아가면 더 그렇잖아...(혼외관계는) 그저 뭐 생활을 지탱해주는 안정감 아닐까. 내 경우도 마찬가지지. 가정을 깨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을 돌 곳을 찾은 거지... 다 만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한다면 그럴 이유가 어디 있겠어.

나는 가정에 충실하고 싶지만 가정에 마음을 붙일 수가 없어. 또 정말로 나를 위해주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남자가 있다면 정말 장난이 아니라 진심으로 만나고 싶어(사례 11).

남편은 가정보다는 바깥생활에 더 재미있어 하고 사교적인 면도 많아요. 가정에서는 그냥 무뚝뚝한 남자예요. 그렇다고 성관계가 원만치 못한 것은 아니예요. 남편은 무책임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남편은 남편대로 일에 바쁘고 지쳐서 집에 들어오고 대화시간도 별로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은 뭐 성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정신적으로 충족된 생활을 원하잖아요.(혼외관계에서) 정신적 충족 뭐 그런 걸 얻는 것 같아요.

일부일체제라는 게 남자들한테는 예외가 있어서, 우리 사회에서는 관대하잖아요. 잘 모르겠지만 여자들을 더 구속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보장받는 것이 아닐까요?

글쎄요 뭐 또 마음이 가게 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돈을 많이 벌어서 아이가 좀 크면 아이와 함께 이민을 갈까해요. 뭐 도피는 아니구요(사례 13).

남편은 직장과 일밖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죠. 집에 돌아와서도 별로 말이 없어요. 말을 좀 하려 하면 피곤하다 그러고, 또 귀찮게 군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없어지고 뭐 일상적인 이야기만 하게 되죠. 소외감 같은 걸 많이 느껴요...(결혼생활은) 그저 그래요. 재미없어요. 애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거죠...

여자들은 결혼해서 아이 낳고, 기르고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은 없고 누구의 뭐 그런 것만 남잖아요. 그런데 어느 시기가 되면 남편은 자기 일로 바

쁘고 아이들은 자기대로 시간을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나는 뭔가 하고 생각해보면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울감도 오고. 그럴 때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우울감 같은 것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보는데요...

나는 가정은 계속 유지하고 싶어요. 바라는 것은 남편과도 좀 잘 지냈으면 하는데, 힘들 것 같네요. 너무 골이 깊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소해야 하는데...여러 방면으로 나를 찾을 수 있는 걸 모색해 봐야죠. 될 수 있으면 건전하게요... 그런 일(혼외관계)들이 없으면 더 좋죠(사례 14).

(결혼생활은) 힘들고 낙이 없어요. 반복되는 결혼 생활을 마지못해 살아요. 남편과 잠자리는 거의 없어요. 남편의 일방적인 태도나 무능력 때문에 소외와 외로움이 크기 때문이죠.

때로는 그의 아내가 안됐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게 반드시 이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사례 16).

3. 불만족한 결혼생활을 끝내기 위한 혼외관계

이미 정서적으로 맞지 않고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데다 폭력적인 남편이 혼외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여성들은 마음의 문을 닫고 결혼생활을 끝낼 준비를 한다.

(사례 6)의 여성은 “경제력이 없으니까” 자신을 무시하고 종속물로 생각하던 남편에게 “환멸을 느끼고 있던 차에 남편의 혼외관계에 의해 더욱 사이가 벌어지고, 새로 시작한 일터에서 대학시절 짝사랑하던 남자를 우연히 만나면서 그와의 관계를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사례 8)의 여성도 정서적으로 떨어져 있던 남편이 자신 몰래 6년간 다른 여자와 사귀었으며 “그 여자가 불쌍해서 정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외로움 속에서 다른 남자를 만난 경우이다. (사례 12)의 여성은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성적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남편의 불륜을 목격하고 나서부터는” 아예 남편과 잠자리를 회피하고 있다. 그래서 “어차피 남편과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자식들 봐서라도 가정에 충실하고 싶는데 마음이 늘 허

전하"니까 "다시 한 사람을 만나 연애도 하고" 다른 곳에서 새로운 "내 인생을 찾고" 싶어한다.

이 여성들이 처음부터 무턱대고 결혼생활을 끝내기 위해 혼외관계를 시작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미 이들은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남편과 떨어진 상태에 있었으며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 가정을 지키고자 했지만 "자기도 그런 경험이 있으면서 절대 용서 못하는" 남편(사례 6), 사귀고 있는 "그 여자가 불쌍해서 정리 못하는" 남편(사례 8),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남편(사례 12)과의 악화된 관계에서 혼외관계는 결국 이혼이나 별거상태로 가는 촉진제 역할을 한 것이다.

이는 Sprecher(1998)가 분석한대로 혼외관계를 새로운 관계모색의 기회로 본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 여성은 이미 부부간 신뢰가 붕괴되고 결혼생활이 경직되면서 남편과 관계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관계를 끝내기 위한 시도를 한 셈이다. 배우자의 정서적 기제와 행동유형으로 혼외관계를 분류한 Brown(1991)의 연구에서도 감정적으로 이미 떨어진 부부에게 결별을 위한 혼외관계가 제시되어 있다.

(남편은) 나를 무시하는 편이에요. 요즘은 맞벌이를 많이 하잖아요. 아마 내가 경제력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의 종속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땐 환멸을 느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 양복에서 여자와 찍은 사진이 나오고 남편이 그 여자와 외도를 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남편에 대해 남은 것은 환멸 뿐이에요. 자꾸 내 마음의 문이 굳게 닫히는 것 같았어요.

처음부터 그런 관계까지는 생각지 않았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운명적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아마 그도 그런 생각으로 괴로워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남편은 자기도 그런 경험을 했으면서 나를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다 하네요. 그래서 나도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결국 남편과 나는 이혼을 했어요(사례 6).

남편하고는 정서적으로 잘 맞지 않아요. 사람만 너무 좋았지 뭐 내면을 충족시켜 줄 대화라든가 그런 것은 잘 없었어요. 그래도 착하니까 별 문제없

이 살았어요. 그런데 나는 그런 소문이 들려도 설마했는데, 남편이 단체일을 보고 그러면서 부녀회 회원들과 놀러가고 그러더니 바람이 났어요. 내가 알았을 때는 벌써 그 여자와 사귀는 6년 쯤 된 다더라구요, 그래서 아이들 땀에 이혼은 안되겠고 정리하라고 했는데 그 여자가 불쌍해서 정리 못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은 별거 중에 있어요.

그 사람도 가정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러면 안된다고 생각했지만 나도 그 당시 남편과 별거 상태로 많이 외로웠던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려고 했죠(사례 8).

남편은 성격이 급하고 폭력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도 뒤끝은 없어. 결혼 후에는 성적 만족은 한번도 느껴보지 못했어. 그러다가 남편의 불륜을 목격하고 나서부터는 한번도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어. 한 6개월 정도 되었나...

내 남편도 결혼해놓고 나만 바라고 사는 것은 아니지. 바람도 피우고, 그런데 남자들은 그러면 그냥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고 여자들한테는 많이 불리한 것 같아... 여자라서 숨기고 살아야 하는 게 많지.

아무리 사회가 변했다 하더라도 아직은 보는 눈이 다르지. 생각해 보면, 그래도 남녀가 평등하다면 여자들은 자기 안에 있는 욕구를 맘껏 드러내놓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나에게 잘해주고 나의 맘을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또 만나고 싶어. 어차피 남편과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다른 곳에서 내 인생을 찾고 싶기도 해... 나는 내가 하는 일도 열심히 하고 싶고 또 자식들 봐서라도 가정에 충실하고 싶은데 마음이 늘 허전하고 그러니까. 가정이란지 일은 별개로 다시 한 사람을 만나 연애도 하고 싶어(사례 12).

4. 만족한 결혼생활, 그러나 기회와 대안으로서 혼외관계

앞에서 제시된 사례와는 달리 만족하고 평등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기혼여성들 중에서도 혼외관계를 맺는 경우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총 4사례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중 (사례 1)이나 (사례 7)과 같이 전반적인 결혼생활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남편이 바빠서 생긴 빈자리" (사례 1)를 채우거나 "서

로 취미가 틀려”(사례 7) 무관심한 남편을 대신한 혼외관계가 있는가 하면, 열정에 빠지거나(사례 2), 어린 시절의 첫사랑을 만나면서 혼외관계를 시작하는 경우(사례 15)도 있다. 이 사례들의 경우는 앞서 기술한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대로 결혼생활의 자율성이나 이성과의 만남의 기회증가와 연관이 있어 보인다. 이들 사례를 좀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 1)이나 (사례 7)의 여성 모두 전반적인 결혼생활이나 남편에 대한 불만은 없는 듯하나 때로는 남편의 부재와 무관심이 이들의 혼외관계를 부추긴 요인이 된 것 같다. (사례 1)의 여성은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가르치던 남성과 사랑에 빠진 경우로 “외모적으로 손색이 없구... 내 자신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사랑의 느낌) 오더라”고 말하고 있다. (사례 7)의 여성은 일을 시작하면서 다른 남성을 만나게 되었는데 “자주 만나면서... 취미생활을 같이 하면서... 남편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된 경우이다. (사례 1)과 (사례 7) 여성 둘 다 남편과 연애결혼한 경우이고 결혼생활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사례 2)의 여성은 중매로 결혼한 경우로 사회교육장에서 만난 혼외관계의 남성과 “하루도 안보면 병이 날 정도로... 열정적”인 사랑을 느끼고 있으며 “남편에게는 미안하지만 여건이 된다면 아이들 데리고 그 사람과 함께 살고” 싶을 정도로 현재의 그 남성과 결혼을 희망하고 있는 상태이다. 즉, 이 여성은 열정을 느끼는 혼외관계의 남성을 현재 남편보다 더 나은 대안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한편, (사례 15)의 여성은 경제적으로나 성적으로 결혼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호감과 애정을 느꼈던 그 친구와의 관계를 “혼외관계라는 말이 좀 우스울” 정도로 친근하고 긍정적인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이 여성은 “사회가 아직은 인정치 않”는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정말 인생을 아름답게 꾸려갈 수 있다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여성은 자신 스스로도 “삶을 주체적으로 사는 편이라”면서 자신을 위해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라고 밝히고 있다.

앞서 제시한 세가지 유형의 여성들이 부부관계를 배타적인 관계로 본 반면, 이 유형의 여성들은 결혼생활을 개인의 성장이나 다른 관계와 분절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부부가 서로 혼외관계를 인정할 만큼 개방화된 결혼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율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유형은 Reibstein과 Richards(1992)의 분류 중 세 번째에 속한다. 이 경우도 이성과의 만남의 기회가 혼외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다.

저나 남편이나 둘 다 서로에게 헌신적이었어요. 제가 판단했을 때 남편도 제게 그렇다고 확신해요. 결혼하고 후회스럽다고 생각한 적은 별로 없거든요... 남편하고도 굉장히 대화가 잘 되는 편이고 사이도 좋은데 보내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업무가 끝나면 새벽 2시 3시 되거든요. 아침에 빨리 나가고 휴일 같은데도 공치러 가니까. 그러니까 보내는 시간은 별로 없었어요, 저하구.

정말 너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정말 태어나서 그렇게 힘들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제 스스로 괴로웠고 남편보기도 힘들었고 정말 그런 관계는 정말 정말 만들고 싶지 않아요... 만약 선생님과의 관계가 정말 참 사랑이었다면 그에게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이 정리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남편이 사업 때문에 바빠서 생긴 빈자리를 그가 대신 메웠다고 생각해요. 내가 사랑한 사람은 정말 남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너무 고맙구요. 눈치를 채 것 같은데 끝까지 믿고 기다려준 것이 내가 가정으로 돌아오는데 힘이 된 것 같아요(사례 1).

결혼생활은 만족했어요. 남편은 저한테나 아이들한테 너무 잘 해줘요... 주위에서 잉꼬부부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적으로도 서로 너무 잘 맞다 그랬죠.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고 부터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아이들 때문에 그러지 않아야 하는데 하면서도 내 맘대로 잘 안되더라고요. 남편과는 이혼까지 하려고 몇 번이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맘에 걸려서 또 주저했고, 그러기를 몇 번 했어요...

남편과는 정리하고 싶은데 그렇게 맘대로 되지는 않아요. 사실 그 사람이 미혼이라 그 사람에 대한

불안감도 많구요. 남들이 생각하면 우습겠지만 나에게 중대한 일이에요. 아이들 좀 상처를 덜 받고 더 자랄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요. 지금도 떨어지는 게 아쉬워 늘 괴로운데, 남편에게는 미안하지만 여건이 된다면 아이들 데리고 그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요(사례 2).

(남편이) 나에게 별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믿는 건지 나에게 자유를 많이 줘요. 한번씩 난 너를 믿는다, 그 한마디만 하죠... 성적으로 불만족은 없어요. 서로 취미가 틀리니까 함께 하는 시간이 좀 없죠. 서로 무관심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부싸움은 한번도 안했어요... 결혼 전에야 죽자살자 하던 남자도 결혼하고 나면 나 몰라라 아닌가요. 무슨 이야기하면 피곤하다 그러고 같이 취미생활도 안맞고, 또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잘 안 만들어지잖아요. 아마 서로의 맘을 잘 알아주는 상대가 필요하겠죠(사례 7).

제 남편은 참 부드러운 사람이예요. 그리고 세심한 편이구요. 아이들한테도 자상하고 나한테도 무척 잘하죠... 결혼생활은 매우 안정적이에요.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없구요... 남편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많고 우리는 대화를 많이 해요. 취미도 비슷하구요. 성적인 면에서도 너무 잘 맞죠... 남편은 상당히 가정적인 사람이구요.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려고 하죠. 너무 만족해요...

(혼외관계는) 뭐 특별히 서로의 가정에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 기회가 된다면, 뭐 나쁘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죠. 우리 사회가 좀더 기혼남녀의 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면 좋겠어요... 그런 관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정말 인생을 아름답게 꾸려갈 수 있다면 바람직하겠죠. 우리 사회가 아직은 인정치 않는 일이지만...(사례 15)

V. 결론

이 연구는 결혼생활과 부부관계의 만족 여부가 기혼여성들의 혼외관계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내용은 혼외관계를 경험한

16명의 기혼여성들에게 행한 심층면접에서 얻어졌으며 결과분석은 결혼생활의 만족도와 혼외관계의 인식도에 따라 네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 검토되었다.

우선 첫 번째 유형은 불만족한 결혼생활과 어떤 계기에 의해 일시적인 혼외관계를 가지지만 혼외관계에 대한 사회적 부정과 자신의 수동성 때문에 가정으로 복귀한 경우이다. 이들은 가부장적 결혼이 자신을 억압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불만족한 결혼생활을 지속하고 있다. 두 번째 유형은 불만족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기제로서 혼외관계를 가지는 경우이다. 즉, 이 유형에 속하는 여성들은 남편과 결혼생활에 많은 것을 기대하고 생활했지만 충족되지 못하는 결혼생활을 끝낼 수는 없고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혼외관계를 그 돌파구로 택한 경우이다. 세 번째 유형은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이미 떨어진 남편과의 관계를 종식시키는 방편으로 혼외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이다. 물론 이 경우 결혼생활의 해체를 위해 고의적으로 혼외관계를 이용한 것은 아니나 굳이 이를 부정하지 않음으로써 해체를 촉진한 것이다. 네 번째 유형은 전반적으로 만족한 결혼생활이나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다른 남자와 열정에 빠지거나 삶의 활력을 위해 애인관계를 병행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들 여성은 부부관계의 개방성보다는 자율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혼외관계를 통해 성적인 쾌락보다는 정서적 친밀감과 사랑의 감정에 몰두되어 있는 듯 보인다.

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혼외관계를 경험한 기혼여성들의 담론 속에서 나타난 부부간 만족도는 혼외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혼외관계를 경험한 이 연구대상 중 75%는 불만족한 부부관계를 지적하고 있다. 중산층 이상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이들 여성들은 부부관계의 불만사항으로 정서적 친밀감 부족이나 대화 부족을 들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남편의 성공을 위해 무조건 가정에 헌신해야 하는 존재로서 허전함과 좌절감, 자포자기 등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이는 이들 여성들이 남편과 가정에 헌신하는 것만큼 남편으로부터 정서적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과 연

관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분위기는 여성들의 희생과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며 가족주의 이데올로기로 이를 합법화한다. 이를 잘 인식하는 여성들은 어쩔 수 없는 여건에 순응하거나 수동적으로 대처하며 불만에 대한 보상으로 혼외관계를 모색하기도 한다. 바로 이 점이 결혼불만족과 혼외관계를 설명하는데 부분적으로 공평성이론이 적용될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

또한 Reibstein과 Richards(1992)가 제시한 유형들이 연구와 비교해볼 때 혼외관계를 결혼불만족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보는 첫 번째 유형과 혼외관계를 결혼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는 세 번째 유형은 나타나고 있으나 부부가 서로의 혼외관계를 인정하는 개방화된 형태의 유형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의 증가와 더불어 이성과 만남의 기회는 혼외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요소는 결혼생활이나 남편에 대한 불만이 없는 여성들의 혼외관계에 대한 해석일 것이다. 스스로도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 여성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가정생활의 유지나 해체를 선택하고 있으며 혼외관계를 삶의 활력소로 평가하고 있다.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도의 증가와 더불어 과연 이들은 부부관계의 자율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부부상의 모델이 될 수 있는지? 또한 이러한 현상이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로 유포되고 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 이에 대한 해답은 앞으로의 혼외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밝혀져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이 연구의 내용은 질적인 담론분석에 의거하고 있으므로 부부간 평등성, 그로 인한 불만감과 혼외관계 등의 정확한 인과관계의 도출은 가능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변수를 명확하게 측정하는 도구를 사용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부부간 불평등성이 부부간 불만감에 기여했는지로 인한 혼외관계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도 이 연구의 경계 밖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전국적으로나 지역적으로 혼외관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 양적인 자료수집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변수들의 영향력이나 경로에 대한 체계적인 분

석도 이루어질 수 있고 이에 대한 일반화도 시작되리라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공미혜(2001). 혼외관계의 역동성과 성정치학. 제17차 한국여성학회 춘계학술발표회 자료집.
 김예숙(1995). 외도, 결혼제도의 그림자인가. 서울: 형성사.
 미셸 바렛, 매리 매킨토시(1994). 가족은 반사회적인가. 서울: 여성사.
 성혜영, 조희선(2001). 일상성에서 본 부부 평등성 경험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6(1), 65-83.
 이영숙, 박경란, 전귀연(2000). 혼외관계의 이해. 서울: 학지사.
 장필화(2000). 여성·몸·성. 서울: 또 하나의 문화.
 조정문(1995). 결혼생활의 공평성 인지와 결혼만족. 한국사회학, 29, 559-584.
 조주현(2000). 여성성체성의 정치학. 서울: 또 하나의 문화.
 조혜정(1990). 한국의 여성과 남성. 서울: 문학과 지성.
 Adams, J. S. (1965). Inequity in social exchange in L. Berkowitz(ed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 267-299. New York: Academic Press.
 Bell, R. Turner, S. & Rosen, L. (1975). A multivariate analysis of female sexual coitu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7, 375-384.
 Berscheid, E. and Campbell, B. (1981). The changing longevity of heterosexual close relationships: A commentary and forecast in M. Lerner & S. Lerner (eds.). *The justice motive in social behavior*, 209-234. New York: Plenum.
 Blumer, R. L. (1991). *Gender, Family, and Economy*,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Brehm, S. S. (1992). *Intimate relationships* (2nd ed.). New York: McGraw-Hill.
 Brown, E. (1991). *Patterns of infidelity and their*

- treatment*. New York: Brunner-Mazel.
- Chrisman, K. (1994). Resource allocation in intimate relationships, in A. L. Weber & J. H. Harvey (eds.). *Perspectives on close relationships*, 176-192. Boston: Allyn & Bacon.
- Glass, G. P. and Wright, T. L. (1985). Sex differences in types of extramarital involvement and marital dissatisfaction. *Sex Roles*, 12, 1101-1120.
- Greeley, A. (1991). *Faithful attraction*. New York: A Tom Doherty Associates Book.
- Hatfield, E., Greenginger, D., Traupmann, J, and Lambert, P. (1982). Equity and sexual satisfaction in recently married couples. *The Journal of Sex Research*, 17, 18-32.
- Hatfield, E., Traupmann, J., Sprecher, S., Utne, M., and Hay, J. (1985). Equity and intimate relations: Recent research in W. Ickes (ed.). *Compatible and incompatible relationships*, 91-117. New York: Springer.
- Hatfield, E., Traupmann, J., and Walster, G. W. (1978). Equity and extramarital sexuality. *Archives of Sexual Behavior*, 7, 127-141.
- Nye, I. F. (1979). Choice, exchange, and the family, in W. R. Burr, R. Hill, E. I. Nye, and I. L. Reis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2, 1-41. New York: Free Press.
- Pateman, Carole. (1988). *The Sexual Contract*. Penguin Books.
- Prins, K. S., Buunk, B., Van Yperen, N. (1993). Equity, Normative Disapproval and Extramarital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0(1), 39-53.
- Rusbult, C. E., and Buunk, B. P. (1993). Commitment processes in close relationships: An interdependence analysi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0, 175-204.
- Sprecher, Susan. (1998). Social exchange theories and sexuality. *The Journal of Sex Research*, 35(1), 32-43.
- Treas J. and Giesen, D. (2000). Sexual Infidelity Among Married and Cohabiting America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1, 48- 60.
- Walster, E., Walster, G. W., and Traupmann, J. (1978). Equity and premarital sex.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82-92.